

사단법인 일불법왕문도회 설립은 세계인류평화와 자비광명을 지구촌 중생들에게 전법하신 초대법왕 일불존자님의 업적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것...

삼다도三多島에서 태어난 혜성慧星

1914년(甲寅年) 10월 10일, 그날도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아래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이전 서씨가문에 영광을 가져왔으니 삼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혜성의 탄생을 이었다.

그날 어머니의 꿈에 한라산 꼭대기에서 긴 지팡이를 짚고 백발이 성성한 누런 도포를 입은 한 도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삼장전인「三藏傳印」이라고 새겨진 옥도장을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훗날 귀택에 삼장법사「三藏法師」가 나올 것이며 나는「백운사」에서 온 도승이라고 말 하고 사라졌다. 그 뒤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세계불교의 거성인 법왕 삼장법사 일불 서경보 큰스님이였다.

스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성품이 운송하였으며, 5~6세가 되면서 글을 배웠고 10세 전에(사서삼경)등을 외다시피 했으며 10세가 지나면서 유서에 대하여 그 뜻을 깨치기에 이르자 15세 약관의 나이에 마을의 훈장이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산길을 따라 오르다 법화사(현재의 삼방굴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염불소리에 발을 멈추게 되었다. 스님은 19세가 되던 해 어느 날 비장한 결심을 하고 법화사스님을 찾아가서 출가승이 될 것을 간곡히 발원하였다. 스님은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삼방굴사에서 강혜월스님으로부터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아 그의 법제자가 되어 진리체득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삼방굴사에서 몇 년을 머물다가 스님을 뜻한바 있어 지리산 화엄사로 옮겼고, 31세가 되던 1935년 가을에는 전북 전주 위봉사에서 사미과와 사집과를 이수하였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는 서울 동대문 밖 개운사 대원암 강연에서 공부를 하였고, 다음해 포광스님이 계시는 전북 김제에 있는 숲산사를 찾아 고명하신 김포광스님으로부터 「식수행상」의 강론을 받으시고, 26세 되던 해인 1940년 20대의 청년학인으로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청년 일불 서경보는 제주도 고향을 두고 두고 육지를 향하여 처음으로 화엄사에서 시작하여 대원사 강원과, 오대산 선방에서도 배움의 열망은 계속되었다. 31세가 되던 해 일본 경도에 있는 임제전문학교에 입학하였고, 1946년 태평양전쟁이 끝나면서 귀국하여 동국대학교에 편입하여 1950년에 동대학을 졸업하였다.

승복 외교관으로 세계전법 활동

1958년 세계5차 방북 국제불교회의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되어 버마(현 미얀마)상 가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고, 그 후 미국 템플대학에 종교학 주임교수로 한국불교의 선을 가르치고 포교활동을 떠나갔다.

특히 인상 깊은 일은 1967년 7월 25일 한국인 승려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밟았다. 스님은 도미하여 1개월간 미국 6개주에서 선서화전, 좌선회, 강연회, 원계식 세미나를 개최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뉴멕시코주에서는 스님을 맞아 유례가 없는 동양인에게는 처음으로 1979년 8월 17일을 「서경보 박사 기념일」로 제정하고 환영하여 미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1978년 8월 미국을 순방 포교사 백악관으로 직접 카터대통령을 예방하여 자신의 선서화 한 폭을 증정하였는데 귀국 후 카터대통령이 친서로 답례를 해왔으며,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을 일불선원으로 보내 스님에게 미행정부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실로 한미 양국간의 유대강화에 큰 공로라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에 취임

세계인류평화와 세계전법과 세계불교인의 단합을 위하여 W·F·B총회에서 세계 불교법왕청 설립을 주장하여,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위원회를 1986년 한국에 설치하고, 1987년 9월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주재하였으며, 1986년 유엔 산하기구인(UN-NGO) 세계평화교육국제연합 한국본부를 유지하고, UN전권대사로 임명받아 국제적으로 활동하였으며, W·F·B 제16차 총회에서 1990년 제17차 W·F·B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제17차 세계불교도 서울대회 대회장으로서 1990년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세계 40개국 3백여 명의 세계 각국 고승들이 참석하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3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회식과 함께 판차살라 수계법회를 성대히 가졌으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와 알버트 슈바이처 재단으로부터 세계인류학상을 받아 W·F·B 역사상 최대의 대성황을 이루어 세계불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스님은 미국, 일본, 소련, 인도, 영국, 홍콩,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등 40국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157개국 5,200여 단체에서 만장일치로 세계불교초대법왕으로 추대되어 '불교의 UN'과 같은 기구인 '세계불교법왕청'이란 기구를 만들어 초대법왕에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스님은 1991년 1월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삼장법사 일불 서경보 법왕에게 감사장을 보내면서 한·미양국간의 우호증진과 우정을 도모하자는 친서를 보내왔다.

세계적인 선서화 예술 및 석학으로 인정

수십 년 동안 선과 함께 살아왔고 참선의 경지를 즐기고 음미하고 미소하면서 지내온 것이 생활의 전부인 스님은 7세 때부터 왕의지의 습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사체를 16년간 연마한 끝에 선을 통하여 독창적인 힘을 체득한 선서화는 불교예술의 새로운 창조



초대 법왕 일불 서경보 존자

로서 지대한 업적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 일불 서경보 큰스님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명문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만 126개를 취득함으로써 그의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며, 또한 저서만도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1024종을 저술하였으며,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비가 전국 도처에 758개를 건립하였으며, 세계지방 곳곳에 6,000여명의 일불 법왕문도와 기네스 4관왕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불 대중사 원적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불 서경보 큰스님이 불기 2540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세계불교초대 법왕 주석처에서 세수 83세 법랍 64세로 원적이 드셨다. 영결식을 마치고 뇌수사리 9과, 배사리 1천 2백여 만장을 앞세우고 의령일불사에서 오후 7시부터 법구를 연화대로 옮겨 1만 5천명의 참배객이 지켜보는 다비식이 진행됐다.

7월 3일 사리 습골 결과 영공 큰스님, 봉주 큰스님, 경주 큰스님의 증명으로 편갈 사리 16과, 두정골 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사리 15과, 치아사리 9과, 점사리 5과, 주홍사리 7과, 뇌수사리 9과, 배사리 6과, 배사리 1과, 대소오색 영롱한 사리9과 등 83과와 영어리 사리 등이 출현되었다.

현재 큰스님 사리는 일불사 경내 사리탑에 안치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일체 유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몰치각한 사람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홍보한 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초대법왕에 대한 업적사업을 시작하다.

일불 초대법왕께서 원적이 드신 이후 당시 비설실장을 지낸 담화 이사장은 그동안 재 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초대법왕의 업적사업을 시작하여 청소년 장학사업은 물론 저소득층지원, 문화예술지원, 재외동포지원 사업으로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세계지방에 일불큰스님의 업적조명과 함께 불교를 홍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금번 사단법인 일불법왕문도회 설립은 뜻있는 문도들이 모여 함께 법인 설립에 동참했다. 앞으로 저희 문도회는 이번 중국구화산 김지장왕보살안찬비 제 건립(오는 8월 22일 제막식)과 함께 부산 88올림픽 성공기원비등 시비와 동상, 흉상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사단법인 일불법왕문도회 연수원과 금강계단은 법왕청 제2청사에서 두고 일불스님을 존경하는 스님 및 불자들이 일불스님의 문도가 되겠다는 문의가 쇄도해 부득하게 법왕청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문도들과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스님 및 불자들은 국제회의장과 요사채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불법왕문도회의 회원 접수는 이사회회의를 거쳐 9월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며, 접수대상자는 우선 정식문도로 건당증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건당증서를 분실

했 경우 계를 받는 사진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새로이 법연을 맺고자 하는 스님 및 불자들은 법왕청 금강계단에서 오는 10월 10일 제1차 건당의식을 봉행 할 예정이며, 계사와 증명을 모신 다음 계첩을 받으면 공동의장 명의로 문도증서를 받고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문도회는 오는 10월 9~10일(2일간)법왕청 제2청사에서 9일 3000배 철야정진기도 및 10일 법왕의 날 행사를 봉행 할 예정이며, 3000배를 통과하는 모든 불자 및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진다.

중국 구화산 김지장왕보살 안찬시비 제 건립불사 동참자 명단 (무순)

사단법인 일불법왕문도회 시비 제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도기 김팔영 / 월호 박팔봉

명예총재 : 봉암 장연중

일불국제문화상 위원장 : 호암 이배영

이 사 : 신법진, 김혜운, 주도화, 박지광, 정문봉, 윤봉산,

갑 사 : 박도천, 김창산

사무총장 : 석무각 / 이사장 : 이담화

자문위원 : 김부할, 석법상, 석보리, 석지명, 유법천, 석연화, 석철암, 김원규, 석태함, 도종묵, 남강수, 김홍국, 석송산, 현당, 김활선, 송해, 이원호, 석창하, 이길중, 엄대복, 불두화, 옥련화, 대혜심, 백련화, 흥연심, 백연화, 최창복, 신순분, 정해수, 연화스님
 동참자 : 박상희, 조호철, 김숙희, 차정자, 김영돈, 유천환, 박우승, 배윤담, 송장규, 강이빈, 사상철, 민영환, 송정운, 조성자, 정은숙, 강순종, 강태우, 김태길, 김도윤, 김병준, 장무중, 장진근, 장영근, 장유근, 장도현, 김철석, 정도원, 강경명, 김소희, 변은영, 김태형, 김주영, 김민준, 김나영, 강수영, 박정배, 유명환, 강후남, 김형곤, 김영곤, 김중성, 이영희, 박종환, 이정인, 이정하, 이종인, 이상우, 이민우, 정현욱, 정종훈, 이경재, 이승민, 이지영, 류일환, 김영균, 김은경, 유돈석, 유형근, 정윤석, 김영기, 정재돈, 지광수, 황스미애, 지준호, 강현남, 지연희, 지연주, 지현, 강민지, 강유환, 김경환, 김선미, 김경호, 김보련, 김재곤, 김근아, 김승범, 김형조, 김보경, 이수덕, 하석준, 김경희, 박용호, 박용길, 김월숙, 정명호, 김연이, 서성원, 서경원, 서철원, 임행순, 김도원, 김태원, 김동하, 김영배, 박점순, 김효정, 김연희, 김경자, 한승중, 한광수, 한종근, 유재욱, 안희용, 한애숙, 양덕규, 한인숙, 이승철, 김현규, 한희숙, 김진영, 김진숙, 송창영, 김동우, 이삼순, 이종태, 박순임, 박구만, 최학순, 박성민, 박성연, 김재천, 최현순, 김연경, 김연우, 김지후, 최성규, 김은숙, 최원서, 최승연, 최준혁, 이운영, 최문경, 이근찬, 이수진, 최성호, 김희진, 최경현, 박근남, 이상선, 신장현, 마미향, 신은비, 김대준, 최한옥, 이정길, 이민혜, 양소순, 노소영, 한혜경, 김우성, 오부흥, 강남숙, 김성구, 김은정, 김영락, 김명락, 김순미, 변경란, 이말선, 김정화, 김숙임, 김차순, 장은영, 백순옥, 이조남, 정문자, 박재규, 박정윤, 박송희, 박송림, 미소화, 손상의, 이선희, 권성민, 주우중, 이수덕, 이계순의 지정여행사로는 (주)비바관광 정설립 사장이 선정되어 함께 동참합니다.

중국구화산 김지장보살 안찬비 제 건립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님 및 사부대중에 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불법왕문도회에서는 말보다 실천하고 문도님들의 복지는 물론 앞으로도 큰스님의 업적을 조명하고 보다 많은 자료수집과 홍보에 열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후 원 금 ◇

- 은행명 : 하나은행, 후원금계좌
- 예금주 : (사) 일불법왕문도회
- 계좌번호 : 011-3417-1010-604 입니다.

저희 문도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면

은행 계좌번호는 쉽게 기억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사)일불법왕문도회 ☎ 02)3417-1010

삼사일체-일불일왕 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사단법인 일불법왕문도에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일불국제문화상 위원회 위 원장에 호암 이배영(전 은평구청장)을 내정하였습니다. 일불국제문화상 위원회 위원장에는 추후 스님으로 추대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일불국제문화상과 평화상을 큰스님께서 설립하여 시상해 왔으나 1996년 이후 중단되어 저희 문도회에서 이를 관리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목적

본 법인은 불타의 진리와 대자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자각각다 각행원만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일생동안 남부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758개의 평화통일 기원시비를 건립하고 6,000여명이 넘는 제자들을 배출하여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일불 서경보큰스님의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으로 불교흥업을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통합과 호국불교를 통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일불 큰스님들의 업적과 자료를 기리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한국불교를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불교문화 창달과 중생제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사업 ◇

1. 일불법왕스님의 업적사업을 조명함.
2. 일불법왕스님의 유물(사리)보존 및 박물관 건립
3. 일불법왕스님의 수행과정에 대한 자료 발굴 조사
4. 일불법왕스님 추모제 봉행
5. 일불법왕스님 추모제 봉행
6. 평화통일기원 일불시비 및 동상 흉상 관리 및 보존사업
7. 일불국제문화상 및 국제평화상 시상
8. 세계불교도 우호증진과 국제 교류사업
9. 일불법왕스님 건립사찰관리 및 유지보존사업
10. 일불문도 회보지 발행
11. 호국불교를 통한 문도들의 단합 및 지원 사업
12. 본 법인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사 찰 등 록 안 내

■ 사.암등록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이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조회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법으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귀의 삼보하옵시교!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